

주님과 사귀는 사이

<요한일서 1:1-10>

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는 관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지니와

7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는 관계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 묵상하기

본문이 기록될 당시 교회들은 외부로는 박해를, 내부로는 이단과 철학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사도 요한은 편지 첫머리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1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 나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막연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 보며(11절), 깊이 사귀게 되는(7절) 은혜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적용하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마치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듯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주님은 내가 그분과 사귀는 사이가 되기를, 또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와 사귀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 생각하기

- 요즘 내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직접 대하며 깊이 사귀고 싶은 대상,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오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자백할 죄악은 무엇인가요?